

신선한 내용으로 지역사랑 일구는 '향토지' 들

종래의 경색된 편집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도 ... 주제별 구성도 돋보여

이해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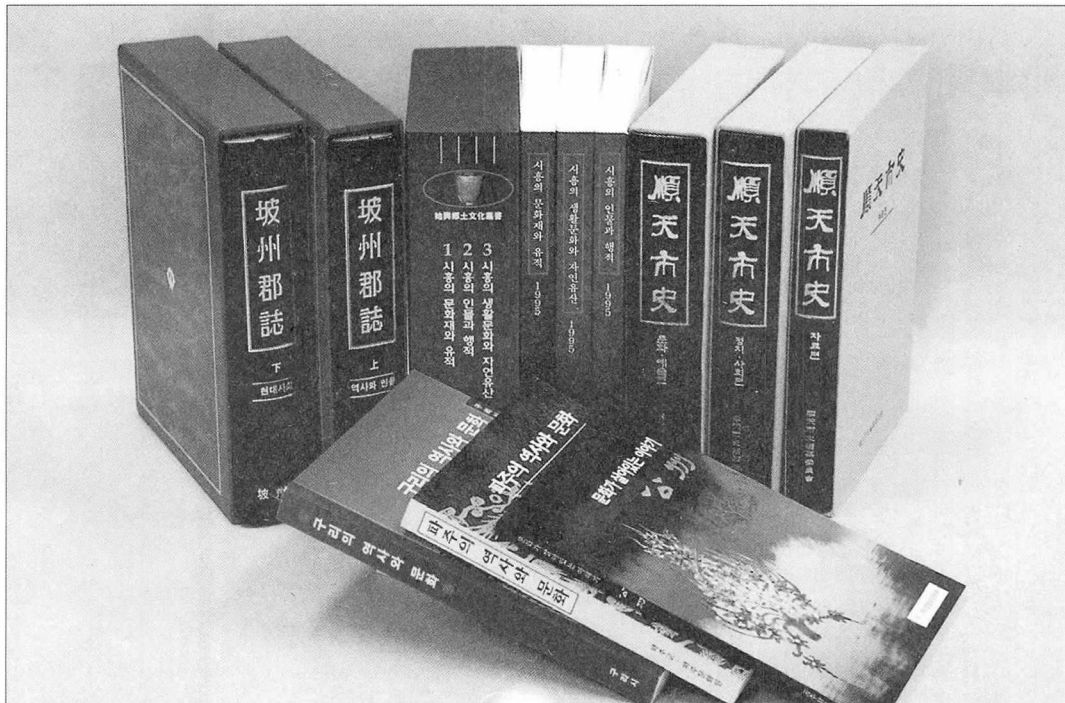
공주대 교수 · 국사학

지역문화자료의 정리와 그 집성물로서 향토지가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향토지의 수준은 바로 그 지역의 문화이해와 인식 수준을 대변하는 동시에, 그것이 지역문화를 아끼고 보살필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향토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이들 향토지의 종류는 시·군지류의 전서류와 대상범위를 보다 축소한 면·리동지들, 그런가 하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또는 특정문화별로 정리한 분야사, 사진자료나 시문모음, 사료모음, 문화유적집, 또 향토사 교과서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부각시킨 것 등 실로 다양하다.

구태를 벗은 새로운 향토지들

이 가운데 최근 들어 시·군 향토지를 중심으로 돋보이는 새로운 편찬경향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과거의 향토지들은 방대한 분량에다 특색 없는 한국사의 축소판, 전근대적 편찬체제의 고수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향토지가 목표하는 지역문화사의 특성이나 문화

지역전승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를 집적한 향토지들



상이 부각되기 어렵고, 체계적 이해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읽고 싶은 책, 정이 가는 책이 되지 못하였다.

다행스럽게 최근 들어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한 새로운 형태와 의식을 지닌 향토지를 발간되어 주목을 끈다. 바람직한 향토지 편찬을 기대하면서, 이들 특색 있는 몇 개 향토지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지역문화의 특성을 올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에 남아 전해오는 전승자료들을 충실히, 그리고 충분하게 정리해야 한다. 기초자료들이 광범하게 수집되어야 그중 어느 것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또 어느 것이 보편성을 지닌 자료인가를 구분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작업과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기초자료가 수집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지역적 특성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도 무리가 아니다. 자료수집의 경험이나 이에 대한 투자가 적다면 이미 그 향토지는 본연의 궤도를 이탈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 향토지 편찬과정에서 자료수집의 과정은 이따금 생략되기도 한다.

이런 경향 속에서 《순천시사》(1997.3)의 사례는 매우 주목된다. 모두 3책으로 분책되었는데, 제1책은 정치사회편(840쪽), 제2책은 문화예술편(1,011쪽), 그리고 제3책 자료편(650쪽)으로 구성돼 있다. 《순천시사》는 기초자료를 정리하려고 노력한 외에 주제별 접근방식에 의해 지역사의 체계적 정리를 시도한 점에서 아주 전진적이다. 3책의 총

집필자 수는 81명에 이르고, 주제별 필진의 구성도 전국의 전문연구자와 향토사연구자를 망라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증대시켰다. 아마도 이같은 성과는 편찬과정에서 편찬실무진과 순천시의 책임있는 시사편찬의 기본적인 교감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특히 자료편은 크게 사진으로 보는 순천, 순천지방사 사료, 논저목록과 연표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사 사료편의 경우 각종 지리지와 삼국사기·고려사·조선왕조실록·승정원일기 등 관찬사서, 각사등록·비변사등록 같은 등록류 자료, 관련 인물의 문집자료, 동아일보·조선일보·매일신보 등의 신문기사를 망라하여 내용별로 재구성한 방대한 작업이다. 사진의 수집도 지난한 작업이었을 것이나, 각 시기별로 생동감 넘치는 장면으로 자료집을 완성하였다. 논저목록과 발전연표도 누구를 위해 무엇을 겨냥해 이 책자를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순천시사》의 이같은 기초자료에 대한 충실한 수집, 정리작업은 앞으로 간행될 다른 향토지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소셜책 같은 편집으로 신선감

향토지는 과연 누구를 겨냥하고 편찬되어야 할까. 그리고 과연 어떠한 편찬체제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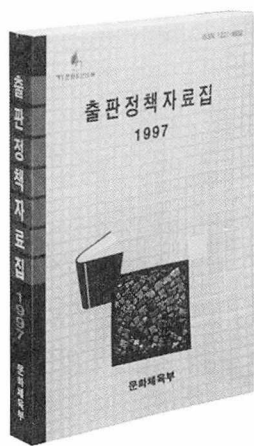
자료

우리나라 출판 현황 읽기

문화체육부 펴냄 《출판정책자료집》

우리나라 출판계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문화체육부 문화산업국 출판진흥과에서 펴낸 《97 출판정책자료집》은 출판현황, 출판진흥시책, 출판관련분야 기반조성, 그리고 출판계의 동향 및 활성화 방안까지 아우르고 있다.

출판현황편에는 우리나라 출판현황 및 세계 출판동향을 수록했다. 우리나라의 출판사, 인쇄소, 도서발행, 서점 현황 및 출판물 유통구조와 독서실태를 다루고 세계 주요 국가의 출판동향을 소개했다. 출판진흥시책편은 출판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건전출판문화 풍토조성,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만화산업 육성, 출판정보의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조성 문제부터 만화산업 육성의 필요성까지 다루었다. 출판관련분야 기반조성편은 저작권 보호 문제와 도서관의 문화공간화 현황 및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96년도 출판계 동향, 각종 출판통계, 출판관련 단체 및 정보지 현황, 출판·인쇄관계 학위논문 목록, 권장도서 목록, 출판관련 법규 등을 부록으로 실었다.

과거의 향토지들은 대개 방대한 분량에 특색 없는 편찬 체제로 지역문화의 특성이 제대로 부각되기 어려웠다. 최근들어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한 새로운 형태의 향토 관련서들이 나와 주목된다. 이들은 부담없는 분량과 평이한 문체, 과감한 편집과 생생한 사진으로 젊은 독자층을 끌고 있다.

향해야 할까. 앞으로 향토지들은 변화하는 문화의식, 주민의식을 반영하면서 지역문화의 안내서·교양서로 자리매김돼야 한다. 이제 향토지는 과거 향수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문화를 일구어낼 새로운 세대를 겨냥한 편찬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의 수요층·향유층은 젊은 세대로 점차 이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내용도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인 것 보다는 일반시민과 광범한 사회를 겨냥하여 교양적 일상적 대중적으로 전환하는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부연하자면 발간목적과 대상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내용을 '이해서=교육서'로 할 것인지, '연구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료집'으로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하고, 독자층도 보다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예로, 시흥시에서 1995년 편찬한 <시흥향토문화총서1~3>를 들 수 있다. 이 문화총서는 <시흥의 문화재와 유적>(382쪽)·<시흥의 인물과 행적>(350쪽)·<시흥의 생활문화와 자연유산>(410쪽)으로 분책돼 있어, 많은 시민들이 자기 지역문화에 대해 알기 쉽게 접근할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로 평가된다. 분책의 편제는 독립적인 단행본 시리즈로 엮여져 독자들의 취향이나 필요에 따라 이용하기 편리하게 배려되었고, 각 책의 제목에서 보듯 기존의 향토지가 지녔던 경색된 모습을 일신하여 편찬체제나 장정도 새롭게 편

집하였다. 마치 소설책과 같은 편안한 구성과 다채로운 삽화도 젊은층이 애정을 가지고 읽기 쉽게 이끄는 요소다.

이같은 향토지의 새로운 편찬체제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동구지(東區誌)>(1996)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책 역시 <전통문화>(252쪽)·<생활문화>(196쪽)·<현대문화>(252쪽) 등 3책의 편제로 구성돼 있다. 부담 없는 분량과 평이한 문체, 여유 있는 편집과 생생한 삽화의 과감한 배열로 젊은 독자층을 유인하고 있다.

지역 특성 살리는 편집 이뤄져야

향토지의 핵심은 역시 지역문화의 독특한 점을 부각시키고, 동질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문연구자가 집필한 향토지가 보편과 논리로 무장되었음에도 지역민들에게 애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배려가 적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연구의 집적과 자료의 축적 기반 위에서 지역문화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같은 노력은 향토사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1980년대에 <자랑스런 강진>이라는 지역교과서로 편찬된 것이 있었고, 1996년 구리시는 <구리의 역사와 문화>라는 초략 형태의 향토지를 발간하였다.

이같은 노력이 보다 구체적이고 집약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공주대 박물관에서 편찬한 <공주의 역사와 문화>(1995)이다. 이를 통해 향토지의 편찬방향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문화지리로 본 공주/계룡산의 문화사적 성격/공주 곰나루 전설/백제 성립 이전의 공주/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고청 서기와 충현서원/동학농민전쟁과 공주전투/공주지역의 3.1운동/근대교육의 발전과 공주' 등 공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각 시기별 주제를 부각시켜 정리하고 있다. 물론 이 책은 대학박물관에서 전문연구자들이 쓴 논문집과 같은 성격이라는 점에서 향토지라고 보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향토지의 수준도 더욱 높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

출·판·미·술·전·문·회·사



불황을 이기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포인트라인은 이러한 아이디어가 풍부한 회사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일곱명과 우수 디자이너 다섯명 그리고 연구 기획하는 아이디어맨 세명으로 구성된 색다른 눈을 가진 그러한 회사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부터는 종이인쇄 일러스트, 파스텔화, 지점도, 유화 및 기타의 기법으로 작업을 해왔으며, 픽처북, 표지, 카렌다, 카드, 참고서, 교과서, 학습지, 스토리북 등 기타, 어떤 일러스트도 소화 해 내는 국내 유일의 팀입니다. 광고 디자인부는 사보편집 기획부터 단행본, 카달로그, 리플렛, 신문, 잡지광고, 표지 디자인 브로슈어, 포스터 및 C.I.P등을 하고 있으며 연구기획실에서는 일반 단행본기획, 유아도서 기획, 아동도서 기획, 학습지 개발, 유치원 교재 개발까지 지난 15년간 항상 앞서가는 기획을 하려고 노력 해 왔습니다. 출판 미술 전문 집단 포인트라인은 앞으로 최고만을 고집하며 한국 출판사의 자존심을 지키며 세계 여러나라 출판사와 당당히 겨뤄 자랑스런 포인트라인이 되겠습니다. 지켜 보십시오!

좋은책 만들기 15년

포인트라인은 머리가 있습니다.

포인트라인

●전화주시면 방문하여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 928-3491~3

●팩스 : 926-2246